

2026년 10월 홍콩관광시장 리포트

PART 1 관광통계

□ '26년 누적 관광통계 분석 및 '26년 9~10월 전망

- '26년 8월까지 홍콩 방한객은 495,68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 상승
- 하계 방학, 여름휴가 시즌 종료로 9월부터 방문객수는 감소가 예상되나 여행사·OTA 판매 현황에 따르면 전년 대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 전망

□ 방한 홍콩인 관광객 수

- '26년 1~8월 '19년 동기 대비 9.4%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37,710	47,197	59,364	70,802	59,888	65,690	76,237	78,792					495,680
2025	44,278	30,270	44,030	64,591	51,363	56,109	64,224	64,860	40,879	44,671	49,635	68,239	623,149
2024	25,755	35,458	49,235	42,654	45,790	54,449	58,305	61,864	40,033	52,439	46,766	58,670	571,418
2023	26,777	16,237	27,155	38,138	28,617	31,874	39,527	43,031	30,424	41,375	38,052	42,777	403,984
2019	35,896	51,312	46,068	76,104	57,026	61,728	59,036	65,958	45,911	65,544	58,600	71,751	694,934

*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https://datalab.visitkorea.or.kr/>

□ 방홍 한국인 관광객 수

- '26년 1~8월 '19년 동기 대비 61.8% 수준 회복,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129,083	96,260	82,425	64,530	58,539	31,791	41,168	44,7545					548,541
2025	126,739	121,523	90,102	62,155	73,233	52,364	50,770	55,884	49,789	91,979	96,160	92,918	963,616
2024	100,022	84,707	67,393	63,804	56,604	47,223	48,089	60,032	64,796	78,822	85,029	96,705	853,226
2023	6,782	14,204	19,312	21,112	25,909	25,052	29,540	34,356	42,165	48,254	62,256	74,057	402,999
2019	161,115	143,804	136,225	97,710	106,017	92,229	78,210	72,166	40,684	45,591	35,402	33,387	1,042,540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홍콩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항공, 페리, 철도이동 등 모두 포함

- '26년 1~8월 '19년 동기 대비 29.14% 증가, 전년 동기 대비 7.72%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1,020,038	9,422,176	10,553,190	11,182,960	10,526,034	9,942,434	10,049,028	10,904,099					82,781,959
2025	9,665,937	7,845,160	9,691,689	10,500,935	9,739,974	9,450,365	9,648,151	10,308,328	8,841,501	10,161,382	10,270,382	11,418,191	117,541,995
2024	7,467,866	7,531,411	9,291,001	7,918,944	8,276,352	9,026,294	8,751,788	9,377,046	8,425,953	9,114,783	9,209,817	10,311,374	104,702,629
2023	1,657,751	3,608,113	5,326,148	6,357,321	5,743,364	6,031,857	6,810,259	7,160,569	6,309,797	6,958,609	7,447,015	8,792,558	72,203,361
2019	7,740,202	7,158,465	8,200,626	9,003,627	8,141,938	8,317,071	7,972,662	7,565,745	7,459,267	7,415,097	7,216,573	8,526,688	94,717,961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항공” 이용 홍콩인 아웃바운드 관광객 수

○ ‘26년 1~8월 ‘19년 동기 대비 91% 회복,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807,584	943,368	988,515	1,030,615	927,601	975,273	1,141,310	1,068,475					7,882,841
2025	987,169	730,359	871,688	1,176,616	936,205	950,682	1,054,326	1,081,042	790,245	959,946	919,632	1,231,000	11,688,910
2024	722,035	850,802	1,016,345	796,307	892,035	1,017,652	1,108,359	1,056,080	824,952	903,312	919,000	1,171,033	11,277,912
2023	564,915	438,491	634,760	764,369	709,969	804,488	966,249	919,504	732,974	800,701	808,093	1,053,332	9,197,845
2019	870,548	959,648	971,690	1,240,660	1,090,184	1,182,381	1,233,244	1,112,268	952,674	1,012,058	1,038,742	1,304,097	12,968,194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홍콩 방문 인바운드 관광객 수

○ ‘26년 1~8월 ‘19년 동기 대비 84% 회복, 전년 동기 대비 10.53% 증가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2026	4811,700	5,141,714	4,354,229	4,217,311	4,464,840	3,722,694	4,503,842	5,456,320					36,672,650
2025	4,742,066	3,667,671	3,818,512	3,847,934	4,078,938	3,480,979	4,390,514	5,152,837	3,292,197	4,588,515	4,189,272	4,645,397	49,894,832
2024	3,825,617	4,001,190	3,401,991	3,391,381	3,398,458	3,132,598	3,921,630	4,453,877	3,062,003	4,090,054	3,568,437	4,255,551	44,502,787
2023	498,689	1,461,969	2,454,093	2,892,256	2,828,384	2,748,488	3,588,530	4,077,746	2,771,826	3,458,778	3,288,915	3,929,986	33,999,660
2019	6,784,406	5,589,628	5,860,346	5,577,201	5,916,541	5,143,734	5,196,969	3,590,571	3,104,049	3,311,571	2,626,127	3,191,466	55,892,609

* (출처) 홍콩관광청 파트너넷 <https://partnernet.hktb.com/>

□ 경쟁국 방문 현황(‘26.1~8월)

○ 전년 동기 대비 일본 8.7% ↑, 대만 5.5% ↓, 태국 0.35% ↑, 싱가포르 7.2% ↓

○ ‘19년 대비 일본 20.8% 증가/ 대만 70.8%, 태국 60.7%, 싱가포르 67.8% 회복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일본	‘26	200,048	233,900	216,300	226,000	207,900	214,300	272,500	247,300				1,818,272
	‘25	243,700	195,500	208,400	263,600	193,100	166,800	176,000	226,100	149,500	196,000	207,600	2,517,369
	‘24	186,300	205,900	231,400	184,500	217,500	250,600	279,100	246,600	170,200	198,800	227,062	2,683,438
	‘19	154,292	179,324	171,430	194,806	189,007	209,030	216,810	190,260	155,927	180,562	199,700	2,290,748
대만	‘26	76,023	81,833	92,887	107,973	85,809	83,354	108,860	120,241				756,980
	‘25	89,391	78,870	84,521	126,554	96,859	94,236	101,602	129,122	74,649	98,688	93,386	1,203,733
	‘24	81,020	92,848	124,375	84,543	87,241	101,696	104,642	127,837	81,089	86,715	92,567	1,198,217
	‘19	93,187	106,441	117,545	170,484	128,377	137,074	151,395	164,668	106,150	116,971	129,635	1,598,223
태국	‘26	40,346	55,659	47,371	55,094	47,433	44,342	71,308	76,096				437,649
	‘25	69,047	43,411	37,395	52,965	41,826	51,345	66,823	72,802	40,295	50,513	51,004	643,158
	‘24	47,831	67,278	78,463	59,401	64,981	81,602	97,896	107,831	59,891	62,126	66,244	876,076
	‘19	60,464	80,543	74,295	88,945	84,897	102,546	108,027	121,806	77,951	74,740	78,574	1,045,198
싱가포르	‘26	19,420	22,100	25,500	34,550	23,960	25,550	38,210	35,780				225,070
	‘25	25,870	21,230	23,380	34,550	32,810	27,750	38,200	38,780	22,470	26,180	25,070	337,650
	‘24	23,420	26,510	35,790	24,040	23,830	23,830	33,770	35,680	26,610	25,200	24,540	329,330
	‘19	30,056	38,921	34,355	52,203	36,424	36,216	50,806	52,767	35,348	36,059	40,381	488,482

* (출처) 각국 관광청. 일부 통계는 확정치 통계가 아닌 추정치 통계임.

□ **2026 APEC 재무장관회의 홍콩 개최: 아시아·태평양 금융 협력 강화 및 지역 경제 안정 도모**

- 2026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된 제33차 APEC 재무장관회의(FMM)는 란포안(Lan Fo'an) 중국 창관(재무장관)의 주재 하에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을 주제로 개최됨
- 이번 회의는 APEC 회원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관계자,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하여 거시경제 정책 공유, 포용적 금융, 디지털 인프라 자금 조달 및 민생 지원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함
- 회의 결과로 채택된 공동 정책 성명에서는 2040년까지의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성장 달성을 강조하며,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금융 안정성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 방안 및 위험 분담 구조 도입, 공공 재정의 촉매제 역할 수행 등이 핵심 금융 협력 분야로 제시됨
- 회의를 주관 및 지원한 홍콩 특구정부는 '일국양제' 하의 자율적 금융 역량을 바탕으로 한 주도적 역할을 부각시켰으며, 이를 계기로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의 '슈퍼 커넥터' 위상을 강화했다고 자체 평가함
- 현지 외신 및 광둥어 매체는 이번 회의가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11월 예정된 APEC 정상회의의 핵심 재정 정책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며, 보안 및 운영 측면에서도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홍콩 '세계 경제자유도' 1위 재탈환: 비즈니스 환경 신뢰 회복**

- 캐나다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가 발표한 《세계 경제자유도 2026 연례 보고서》에서 홍콩이 평가 대상 165개 국가 및 지역 중 1위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경제체제 위상을 재확인함
- 홍콩정부 대변인은 이번 결과가 규제 완화, 무역 자유도, 원활한 자본 이동 등 홍콩이 보유한 강점과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의 견고함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힘

- 특히 존 리(John Lee) 행정장관의 2026년 시정연설(Policy Address)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홍콩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5.1%를 기록하며 최근 5년 내 가장 강력한 성장세를 보임
- 현지 매체는 외단 자본 유출 우려 속에서도 자유로운 투자 환경과 견조한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홍콩 시장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신뢰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함

PART 3 홍콩 관광동향

<인바운드 동향>

□ 2026년 국경절 연휴 홍콩-중국 본토 간 입출국 현황: 본토 방문객 141만 명 돌파 및 내수 경기 회복세

- 홍콩 이민국(Immigration Department) 공식 집계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진행된 국경절 골든위크 기간 홍콩을 찾은 전체 방문객은 약 160만 명이며, 이 중 중국 본토 방문객은 141만 6,000명 이상을 기록함
- 연휴 첫날인 10월 1일 당일 전체 입출국 인원(홍콩 주민 및 해외 방문객 포함)은 약 90만 명에 육박했으며, 이 중 입국한 본토 방문객 수는 약 27만 7,000명으로 단일 기준 연휴 최고치를 기록함
- 7일간 본토 방문객의 일평균 입국자 수는 약 20만 2,000명으로, 당초 홍콩정부가 예측했던 129만 명을 상회하며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한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냄
- 연휴 동안 홍콩을 찾은 본토 단체 관광객은 약 1,140개 그룹(약 4만 1,000명)에 달해, 개인 자유 여행객과 단체 여행 수요가 동반 성장하는 양상을 보임

- 주요 입국 통로로는 고속철도(XRL) 웨스트카오룽 역 및 로후(Lo Wu), 록마차우(Lok Ma Chau) 등 육로 관문이 전체 입국 인원의 다수를 차지함
- 현지 매체는 빅토리아 하버 대규모 불꽃놀이, 드론 쇼, 대중교통 할인, 박물관 무료 개방 등 '대형 이벤트 중심 관광(Event-driven Tourism)' 정책이 방문객 유입을 견인했다고 분석함
- 또한 과거 명품 쇼핑 중심에서 식도락, 문화 체험, 야경 감상 등 '체험형 관광'으로 본토 여행객의 소비 패턴이 변화하였으며, 외식업계 연휴 초반 매출이 전년 대비 약 14% 상승하는 등 현지 소매 및 외식 경기 활성화에 기여함
- 홍콩정부는 광둥-홍콩-마카오 웨이강아오(GBA)의 1시간 생활권 인프라를 바탕으로 홍콩의 '슈퍼 커넥터' 기능을 재확인했으며, 대형 문화·미식 이벤트 유치로 통한 관광객 체류 시간 연장 및 경제적 효과 창출을 지속 추진할 방침임

□ 신황강검문소(Huanggang Port) 재개장: '협작찰험·일차방행' 혁신 시스템 도입과 웨이강아오(GBA) 접근성 강화

- 홍콩과 선전을 잇는 핵심 육로 관문인 신황강검문소가 전면 재개장하여 24시간 운영 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광둥-홍콩-마카오 웨이강아오(GBA) 간의 인적·물적 교류 인프라가 대폭 확충됨
- 이번 신축 검문소의 가장 큰 핵심은 선전과 홍콩 양측의 출입국·관세 당국이 동일 건물 내에서 협력하는 '협작찰험·일차방행(Collaborative Inspection and Joint Clearance)'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여행객은 한 번의 줄 서기로 양측 심사를 동시에 거칠 수 있음
- 출입국 심사 방식 역시 혁신되어 자동화 채널(134개)과 안면 인식·생체 인식 기술을 통한 '원스톱' 통관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평균 30분이 소요되던 통관 시간이 보행자의 경우 최단 20초~5분 이내로 단축되고 차량 검사 시간도 대폭 단축됨
- 홍콩 보안국(Security Bureau) 및 현지 매체는 이번 검문소 재개장이 광둥-선전-홍콩 간 과학기술 혁신 회랑을 긴밀히 잇고 'GBA 1시간 생활권'의 실질적 구현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함

- 다만, 개장 직후 맞이한 연휴 기간에 10만 명 이상의 이용객이 한꺼번에 집중되면서 긴 보행 동선, 초기 대중교통 연계 안내 미비, 내부 편의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일부 이용객들이 SNS(샤오홍슈 등)를 통해 불편을 토로하는 등 초기 과부하 해소와 운영 효율화가 향후 과제로 남겨짐

□ GBA(그레이트베이 에어리어, 웨이강아오 대만구) 요트 관광 시범 사업 개시로 해양 경제 및 지역 통합 가속화

- 홍콩 정부와 광둥성 당국은 GBA 연계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전 등록 및 입항 승인을 완료한 중국 본토·홍콩 개인 및 상업용 요트의 자유로운 수역 출입을 허용하는 '웨이강아오(GBA) 요트 여행' 시범 사업을 10월 16일에 정식 개시함
- 요트 입항에 필요한 출입국, 통관, 위생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용 계류장 인프라를 추가 확보하여, 해양 레저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개선함
- 홍콩 관광청 및 해사처(Marine Department)는 이번 조치가 고소득층 관광객의 방홍(訪港) 유입을 촉진하고, 해양 엔터테인먼트, 정비 서비스, 유통 등 고부가가치 연계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홍콩의 주요 매체는 해당 정책이 단순한 이동 편의 제공을 넘어 웨이강아오(GBA) 내 일률적 물류·관광 인프라 통합의 실질적 성과이자, 홍콩의 고부가가치 관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함

□ 홍콩 세관, 관광객 대상 약국 '단위 속임수' 불공정 무역 행위 단속 및 점검 강화

- 홍콩 세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은 침사추이, 몽콕 등 주요 관광지 내 한약방 및 약국을 대상으로 가격 오인 유도 및 영업상 중대한 정보 누락(Misleading Omission)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함
- 단속 기관인 세관은 제보를 바탕으로 한 수사 외에도 수시로 단속 요원이 손님으로 위장해 직접 한약재를 구매하는 '암행 단속(Test-buy operations)'을 진행하며, 위반 정황 포착 시 즉시 점원 체포 및 상품 압수에 나섬

- 적발된 주요 수법은 소비자가 한약재 결제 가격을 '근(斤, Catty)' 단위로 인지하도록 유도한 뒤, 구매가 확정되고 약재를 분쇄하거나 가루로 가공하여 환불이 불가능해진 시점에 '곤(兩, Tael)'이나 '돈(錢, Mace)' 단위 가격이었다고 통보하는 방식임
- 홍콩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상품설명조례(Trades Descriptions Ordinance) 위반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적발 시 최대 50만 홍콩달러(한화 약 8,800만 원)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함
- 소비자보호원(Consumer Council) 및 세관은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구매 전 한약재의 총 금액과 정확한 계량 단위를 반드시 재확인하고, 피해 보상 및 정황 입증을 위해 영수증과 상호명을 보관할 것을 당부함

□ 홍콩관광청, 영화 촬영지 100여 곳과 명작 50편을 담은 '영화 관광 가이드' 공식 출시

- 홍콩관광청(HKTB)은 10월 21일, 홍콩의 독창적인 영화 유산과 명소 탐방을 연계한 '홍콩 굿 테이크(Hong Kong Good Take)'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명 영화 50편과 100여 곳의 실제 촬영지를 담은 신규 영화 관광 가이드를 정식 출시함
-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는 스타페리 부두, 템플 스트리트, 서구룡 문화 지구 해안 산책로, 얌틴차이 등 주요 촬영지와 올드 센트럴, 삼수이포, 야우마테이 등 홍콩의 옛 정취가 담긴 구역들을 연결하는 맞춤형 관광 동선을 제공함
- 주요 추천 코스에는 영화 '무간도', '세월신투(Echoes of the Rainbow)', '구룡성채: 무법지대(Twilight of the Warriors: Walled In)' 등 홍콩 영화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작품들의 배경이 다수 포함됨
- 가이드 출시와 함께 영화인파 임달화(Simon Yam) 등 유명 배우들이 직접 주요 촬영지를 방문해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는 예능형 프로그램이 방영되며, 장국영·매염방 등 홍콩 영화계 전설들을 기리는 테마별 가이드 투어 및 기획 콘텐츠가 연계 운영됨
- 문화체육관광국(Culture, Sports and Tourism Bureau) 로산나 로(Rosanna Law) 장관은 홍콩이 '동양의 할리우드'로서 풍부한 영화적

자산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며, 영화 문화와 관광 자원을 결합해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도시 탐방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 **홍콩 관광청 2026 홍콩 와인 앤 다인 페스티벌 개최: 행사 규모 확대 및 한국 등 신규 국가 파빌리온 참가**

- 홍콩관광청(HKTB)이 주관하는 ‘2026 홍콩 와인 앤 다인 페스티벌(Hong Kong Wine &Dine Festival)’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센트럴 하버 프론트 광장(Central Harbourfront Event Space) 및 타마르 파크(Tamar Park) 일대에서 개최됨
- 올해 행사는 참가 부스 수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340여 개로 확대되었으며, 행사 부지 역시 타마르 파크까지 확장되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됨
- 전년도 행사 대비 주요 차이점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운영 시간을 사상 처음으로 새벽 1시까지 연장(After Nine Vibe)하고, 전문 도슨트가 이끄는 테마별 시음 투어 코스 도입 및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출연진(에드워드 리, 최현석 등)을 포함한 스타 셰프들의 컬래버레이션 다이닝 스페셜 프로그램을 신설함
- 올해 한국이 호주, 캐나다 등과 함께 새로운 국가 파빌리온으로 공식 참가하였으며, 한국의 전통주, 프리미엄 주류 및 K-푸드를 글로벌 방문객에게 집중 선보일 예정임
- 지난해 약 15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규모 확대와 콘텐츠 다변화를 통해 총 16만 8천 명 이상의 방문객 유치 및 체류 기간 연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조성을 기대함
- 홍콩관광청은 페스티벌 종료 직후인 11월 한 달간 도시 전역의 레스토랑 및 유통업체와 연계된 ‘홍콩 미식의 달(Hong Kong Gourmet Month)’ 프로모션을 이어가 미식 관광 호조세를 지속 유지할 계획임

〈아웃바운드 동향〉

□ 홍콩 익스프레스(HK Express), 창립 13주년 기념 아시아 36개 노선 특가 항공권 프로모션 실시

- 홍콩 최대 저비용 항공사(LCC) 홍콩 익스프레스는 창립 13주년을 맞아 아시아 지역 36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편도 최저 13홍콩달러부터 시작하는 '13주년 울트라 오퍼(13th Anniversary Ultra Offer)' 프로모션을 진행함
- 이번 프로모션의 예약 기간은 10월 26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11시 45분까지이며, 탑승 기간은 2027년 1월 3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로 노선별 상이하게 적용됨
- 최저가인 13홍콩달러(세금 및 유류할증료 별도) 운임은 베이징 다싱, 닝보, 타이베이, 타이중, 다낭, 하노이 등 일부 중국 본토 및 동남아 노선에 적용되며, 단독 편도 예약이 불가능하고 홍콩 출발 왕복(오픈 제나 다구간 포함) 초기 예약 시에만 적용됨
- 방콕, 푸켓, 쿠알라룸푸르 등 동남아 일부 노선은 편도 63홍콩달러부터 시작하며, 서울(인천), 부산, 제주시, 대구 및 일본 주요 도시(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를 포함한 한일 노선은 편도 113홍콩달러부터 판매됨
- 프로모션 항공권은 개인 휴대품 1개와 기내 수하물 1개가 포함된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이며, 지정된 공식 프로모션 페이지 및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선착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됨

□ 프랑스 시위 확산에 따라 홍콩정부 프랑스 황색 여행경보 발령

- 홍콩 보안국(Security Bureau)은 학교 환경 악화로 시작되어 생활비 상승 및 공공 서비스 부실 규탄으로 확산된 프랑스 전역의 지속적인 시위와 충돌을 이유로 프랑스에 대한 황색 해외여행경보(Amber Outbound Travel Alert)를 발령함
- 실례로 따르면 파리 루브르 박물관 인근을 방문 중이던 EGL Tours 단체 관광객 17명이 시위대에 둘러싸였으나 프랑스 경찰의 호위로 안전하게 호텔로 복귀하는 등 현지 체류객들의 긴급 상황이 발생함

- 이에 따라 홍콩 주요 여행사들은 프랑스 여행 상품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WWPKG는 다가오는 투어 2건을 취소해 고객 약 30명이 영향을 받았고 프랑스 포함 상품의 신규 문의 및 프로모션을 잠정 중단함
- 특히 오는 11월 13일부터 파리에서 개최되는 '세계 합성생물학 엑스포(iGEM Grand Jamboree)' 참가 예정이던 홍콩 내 대학 및 중등학교 20여개 팀 중,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칼리지(United Christian College) 등이 정부의 공식 여행경보 발령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현지 방문을 취소하고 온라인 제출 방식으로 전환함
- 교육국(Education Bureau)은 각 학교에 해외 학습 여행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현지 상황에 맞춰 적절한 일정을 조정할 것을 당부함

□ 홍콩국제공항, 세계 최초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디지털 신원 인증 획득: 바이오(안면) 인식 기술 도입 공인

- 홍콩국제공항(HKIA)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로부터 공항 운영자 부문의 '원 아이디(One ID) 인증'을 세계 최초로 획득함
- 이번 인증은 공항 운영 영역인 비접촉 여행(Contactless Travel), 생체 인식 처리(Biometric Handling), 개인정보 보호·동의 및 거버넌스(Privacy, Consent and Governance) 등 3가지 핵심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함
- IATA의 '원 아이디' 이니셔티브는 항공 여행 시 디지털 자격 증명과 안면 인식 기술 활용을 위한 글로벌 표준을 정립하는 체계로, 여객이 공항 도착 전 신원을 검증하고 출국 전 과정에서 여권 및 탑승권 제시 없이 생체 인식 스캔만으로 주요 통과 지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홍콩국제공항은 지난 2021년 도입된 '플라이트 토큰(Flight Token)' 자율 주행·안면 인식 시스템을 통해 현재 전체 출국 승객의 80% 이상이 모든 체크포인트에서 해당 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스템 도입 이래 누적 9,30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함
- 공항관리국(Airport Authority Hong Kong) 및 IATA 측은 이번 인증이 디지털 신원 확인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부문에서 글로벌 업계 표준을 입증한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를 계기로 국제 항공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임

※ 출처 :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스탠다드, 블룸버그 등 현지 언론매체
홍콩정부 보도자료 <https://www.info.gov.hk>
홍콩관광청 보도자료 <https://www.discoverhongkong.com>
싱가포르, 대만, 태국, 일본 NTO 발표자료
Hong Kong Census and Statistics Department
Wing On, EGL 등 홍콩 주요 여행사 모니터링 등